

# ‘대주주’ 매물 불보듯 뻔한데... 동학개미는 그래도 담는다

〈코스닥 종목〉

대대주요건 따른 양도세 공포 기관·외인들, 코스닥 매물 쏟아 개인투자자는 이달 1.3조 매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연말 '매도 폭탄'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개인투자자의 코스닥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수 폭락의 정점이던 지난 3월을 제외하고 매달 순매수 행진이다. 반면 기관투자자는 코스닥 시장에서 물량을 쏟아내는 중이다. 대주주 요건 지정을 피하기 위해 개인의 매도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 분석에 '코스닥 개미'에겐 주의보가 발동했다.

### ◆‘동학개미’, 코스닥 사랑은 여전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은 이달 들어 이날까지 코스닥시장에서 1조710억원 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며 45조3536억원 규모를 사들였던 개인의 투자포지션은 이제 전환됐다. 월간 단위 개인 순매도는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렸던 개인투자

〈개인투자자 코스닥 순매수 규모〉 (억원)

월	순매수 금액
1	13165
2	9438
3	-3328
4	10409
5	3344
6	9215
7	8626
8	17384
9	22909
10	14365

\*월 1~21일별

자의 주식 매수세가 종지부를 찍었다고 볼 수 있다.

코스닥 시장은 다르다. 개인은 이달 코스닥 시장에서 1조4365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기관이 1조943억원, 외국인이 945억원의 매물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지수를 지탱하고 있다. 21일까지 기준으로 지난 9월(2조2909억원)과 1조7384억원(8월) 다음으로 올해 최대 규모 순매수다. 코로나19 이후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던 4월(1~21일) 1조409억원보다도 많이 샀다. 코스

〈기관투자자 순매수 상위 10종목〉 (억원)

순위	종목	순매수 금액
1	삼성전자	2065
2	롯데케미칼	1872
3	포스코	1624
4	SK하이닉스	1561
5	SK텔레콤	1114
6	현대모비스	865
7	KB금융	815
8	하나금융지주	754
9	현대백화점	594
10	SK케미칼	566

\*이달 1일~20일 기준

닥시장에선 여전한 구원투수인 션이다. 추석 연휴와 한글날 연휴(3거래일)로 휴장했음에도 나온 결과다.

### ◆대주주요건 강화로 매물 폭탄 '주의보'

문제는 연말 주가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개인의 거센 반발 속에도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요건을 주식보유액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일 다시 한 번 기존 입장을 반복한 가운데 세제 합산 범위와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시장에선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요건이 대폭 강화된 만큼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인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나금융투자 추정치에 따르면 개정안에 추가로 포함되는 과세 대상 보유 주식액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을 합쳐 41조 6000억원에 달한다.

김성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말 수급 이슈는 코스피보다 개인 매매 비중이 더 높은 코스닥에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미국 대선으로 인한 변동성이 있더라도 연말까지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주식 보유액이 많은 개인은 과거에도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매물을 쏟아낸 바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 12월에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순매도했다. 이 기간 개인의 12월 평균 순매도액은 코스피 2조338억원, 코스닥 4185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순매수 비중이 높

거나 수익률이 높은 업종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 ◆코스닥 1조4000억원 기관, 가치주는 담았다

소외당했던 경기민감주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도 '코스닥 주의보'를 뒷받침한다.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방어주보다는 경기민감주의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 예상은 지배적이다. 코스닥시장은 헬스케어 섹터의 비중이 약 28.5%를 차지한다. 김지윤 대신증권 연구원은 "최근 가치주 중심으로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이 이뤄지면서 성장주와의 실적 격차가 축소됐다"고 했다.

이는 기관 동향에서도 추측할 수 있다. 기관은 이달 들어 20일까지 코스닥 시장에서 1조1000억원 가까이 팔아치웠지만 코스피 시장에서 고작 124억원 파는 데 그쳤다.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코스닥 매도 규모가 크다. 이 기간 기관의 순매수 상위 10종목은 모두 경기민감주 혹은 가치주로 분류되는 삼성전자, 롯데케미칼, 포스코,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현대백화점, SK케미칼, 한국전력이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 박정림 KB증권 대표 '디지털혁신 CEO' 선정

한국IDC DX어워드 2년 연속 수상 디지털 생태계 확장 등 공로 인정



번에 신설되어 디지털 혁신 기업을 만들기 위해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끌어 간 CEO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박정림 대표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고객 중심과 혁신 주도'라는 비전 수립 ▲플랫폼 기반의 신규 사업모델 발굴 ▲핀테크·빅테크와의 제휴를 통한 디지털 생태계 확장 ▲유연한 기업문화 조성 및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등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극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KB증권 측은 밝혔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KB증권은 지난 20일 한국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 Korea Ltd.)가 개최한 제4회 IDC DX 어워드(IDC Digital Transformation Awards)에서 박정림 대표이사(사진)가 한국 'DX 최고경영자(CEO)' 부문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실시한 2019년 IDC DX 어워드에서 한국지역 최고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 DX CEO상을 통해 2년 연속 수상을 달성했다.

IDC DX 어워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리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DX CEO' 부문은 이

## 민간임대아파트 연말까지 8213가구 모집

아파트 청약 제도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지면서 실수요자의 관심이 민간임대아파트로 쏠리고 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연말까지 전국에서 8213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청약 제도는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점수가 매겨진다. 이와 같은 기준은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을 지난 이들에게 맞추기 힘든 조건이다. 지난 7~8월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 당첨자의 평균 최저 청약가점을 보면 60.6점이었으나, 20대 초반에 결혼하고 30대에 4인 가족을 꾸려 청약가점 만점을 받아도 57점을 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과 상관없는 민간

임대아파트가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연말까지 충남 아산을 비롯 인천 부평, 부산 강서구, 전북 익산 등지에서 8213가구가 입주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장기임대주택인 민간임대아파트는 최대 8년 간 임대가격 상승 걱정 없이 거주하며 8년 뒤 내 집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

청약 조건이 자유로워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없다. 최대 8년까지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민간임대아파트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거주 중에도 일반 분양 아파트 청약할 수 있다.

/정연우 기자 yw964@

## 가치주 강세 국면... 저금리 환경 고려해야

### 8월 말 대비 가치주 6.5%↑ 유동성장세→실적장세 전환 금리 상승이 가치주에 유리

코스피 지수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 성장주 대비 가치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면받던 가치주와 경기민감주가 경제활동 정상화로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제공하는 WMI500 섹터지수를 살펴보면 8월 말 대비 가치지수는 6.5% 상승했지만, 성장지수는 2.4% 하락했다. 올해 초부터 약세 흐름이 이어졌던 가치지수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하기 시작한 것이다.

### ◆가치주 실적 회복에 따른 기대감

코로나19 이슈 이후 국내 증시는 치료제와 관련된 바이오주, 언택트주, 전기차 배터리주 등의 성장주가 이끌어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이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깜짝실적)를 기록하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3분기 실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이동하는 전환기로도 평가된다.

이재만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유동성 확장을 기반으로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높은 수준에 도달한 후 평균 수준에 수렴해 가고 있다"며 "유동성 장세 이후 증시를 움직일 수 있는 변수인 실적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경제 전망 개선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4%다. 지난 6월 -5.2% 대비 상향 조정된 수치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 -2.1%에서 -1.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수출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 ◆가치주 전환 위해선 금리 상승 필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도 가치주의 강세를 이끌어냈다. 풍부한 유동성과 경제활동 정상화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자 원자재 가격도 자연

스레 상승했다.

조승빈 대신증권 연구원은 "가치성향이 높은 섹터로 에너지와 소재 섹터를 들 수 있는데 두 섹터는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실적 전망치가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장기간 부진했던 주가 성과로 성장지수 대비 높아진 가격 매력도와 가치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가치지수의 강세 전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장 주도주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본격 전환되기 위해선 금리가 상승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장세는 성장주의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조 연구원은 "현재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에 반영된 장기채에 대한 기간 프리미엄과 물가를 반영한 실질금리는 모두 마이너스(-) 영역"이라며 "각국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실질금리의 하락은 성장주에 유리한 투자환경"이라고 평가했다.

/박미경 기자 miyoung96@

## 미래에셋자산운용 美 부동산 공모펀드 출시

아마존 물류센터 세곳 투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 중부와 남부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 세 곳에 투자하는 '미래에셋자산미국부동산공모펀드16호'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펀드 모집규모는 965억원 한도로 10월 28일까지 KB국민은행과 미래에셋

대우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만기는 설정일로부터 5년 6개월이며 중도환매가 불가한 폐쇄형 구조다.

투자자에게 환금성과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거래소 설정 이후 90일 이내 상장한다.

투자대상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임대면적 전체를 사용하

는 미국 인디애나,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물류센터 세 곳이다.

부지 선택부터 설계까지 아마존이 관여했으며 글로벌 물류시설 개발업체인 스케넬이 개발, 모두 올해 준공됐다.

물류업체가 상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배송 마지막 구간인 라스트 마일(Last-mile) 물류시설로 배송시간 단축을 위한 아마존 물류 시스템의 핵심으로 꼽힌다.

/송태화 기자